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5, Vol. 24, No. 4, 887-901

자기 불일치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 자의식의 매개효과와 자기제시 동기의 중재효과*

정 승 아† 오 경 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자기불일치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의식의 매개효과와 자기제시 동기의 중재효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모형을 검증해 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5개 대학의 대학생 853명의 설문 자료가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의식의 매개역할을 가정한 모형과 가정하지 않은 몇 가지 대안 모형을 비교해 본 결과, 자기불일치와 사회불안과의 관계에서 자의식의 매개효과를 가정한 모형이 유의하게 더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둘째, 자기제시 동기가 높고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자기제시 동기의 중재효과를 검증해 본 결과, 자기제시 동기가 높고 낮음에 따라 자기불일치에서 자기의식에 이르는 경로계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불일치와 사회불안 사이의 관계에서 자의식의 매개효과와 자기제시 동기의 중재 효과를 가정한 모형이 사회불안의 기제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사회불안, 자기불일치, 자의식, 자기제시동기

---

* 본 연구는 제1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정 승 아 / 한양대학병원 신경정신과 /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TEL : 02-2290-8423 / E-mail : serpent9@naver.com

임상현장에서 사회불안으로 내원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본 연구자의 인상에 의하면,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남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 남들이 자신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에 관하여 마치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검토하고 염려하는 것과 같은 과도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또한 그들은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다'라는 욕구, 또는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야 남들이 좋게 평가할 것이다' 라는 내적 기준이 상당히 높고, 자신이 남들에 비해 호감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즉, 과도한 자의식,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낮은 자존감과 같은 요인이 사회불안의 핵심에 내재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곤 한다.

실제로 문헌들을 검토해 보면, 이러한 측면들이 사회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기존의 단편적인 연구들은 상당히 많다. 예를 들면, 자의식이나 자기 초점화된 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연구들(김지혜, 안창일, 1991; Bruch, Hamer & Heimberg, 1995; Buss, 1980; Clark & Wells, 1995; Crozier & Russell, 1992; Edelmann, 1985; Hope & Heimberg, 1988; Nilly & Jennifer, 2002; Tanna, Mellings & Alden, 2000; Wells & Papagerogiou, 1998; Woody, Chambless & Glass, 1997). 그리고 사회불안의 발생원인이나 작동기제를 설명함에 있어서 자존감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들, 특히 자기개념 및 자기개념간의 불일치와 사회불안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은영, 1991; 임일모, 조용래, 김학렬, 1995; Bruch, Rivet & Laurenti,1999; Higgins, Klein & Strauman, 1985; Strauman, 1989; Scott & O'Hara, 1993; Weilage & Hope, 1999)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사회불안 뿐 아니라 다른 정신 병리적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역시 중요한 심리적 구성개념으로 사용되곤 한다. 또한 어떤 변인이 사회불안과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단편화된 연구만으로는 사회불안이라는 현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거나 이를 통해 치료적인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제한적인 가치만을 줄 것이다. 따라서 사회불안에 있어서 이러한 요인들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 또는 그 변인이 사회불안과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보다는, 그것들이 사회불안을 유발 혹은 유지시키는데 있어서 어떤 독특한 관계로 결합되어 불안 유발 기제로 작동하는가 하는 점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불일치, 자의식, 자기제시 동기와 같은 이러한 요인들이 사회불안에 있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관해 시사점을 줄만한 포괄적인 이론적 접근으로는 자기불일치 이론(self-discrepancy theory)과 자기제시 이론(self-presentation theory)을 들 수 있다. Higgins(1987)에 의하면 상이한 자기의 영역(self-domain)간의 상이한 불일치 상태가 상이한 정서를 유발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실제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 사이의 불일치(actual/ideal)가 생기면 불만족감, 실망, 슬픔과 같이 '낙심한 상태와 관련된 감정'(dejection-related emotions)을 겪기가 쉽다. 반면에 실제적 자기와 의무적 자기의 불일치 상태에서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위협, 죄책감, 자기경멸감, 안절부절못함 등과 같은 '초조한 상태'와 관련된 정서'(agitation-related emotions)를 겪기 쉽다는 것이다. 사회불안은 이러한 의무적 자기와 실제적 자기의 불일치에서 파생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예측이 그와 동료들간의 몇몇 실험실 혹은 질문지 연구에 의해 경험적으로 지지되어 왔다

(Higgins, 1987; Strauman, 1989; Scott & O'Hara, 1993). 그러나 이후의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특정 자기불일치-특정 정서경험'에 관한 그의 견해를 부정할 만한 결과도 보고 되고 있다(Tangney, Niedenthal, Covert, & Barlow, 1998; Weilage & Hope, 1999). 이처럼 사회불안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자기불일치 이론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은, 자기불일치 구조와 사회불안 사이를 매개하는 인지적 요인 즉 자의식 과정에 대한 고려가 없었거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회불안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이상적/의무적 자기 불일치를 구분하는 것이 실제로는 유용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한편, 자기제시이론(self-presentation theory)은 동기적 측면에서 사회불안을 설명한다. 자기제시 이론에 의하면, 사회불안은 자신이 기대하는 인상을 타인들에게 주고 싶다는 욕구(자기제시동기), 그리고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내적인 평가(자기제시 기대)라는 두 가지 요인의 함수관계이다. 즉, 자기제시 동기는 높으나 자기제시 기대는 낮을 경우에 사회불안이 유발된다. 자기제시 이론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인 자기제시 기대와 자기제시 동기는 자존감, 자기평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의식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따라서 자기제시 이론의 관점은 사회불안의 인지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선행 연구들이나 자기불일치 이론뿐 아니라 자기개념 및 자기평가와 관련된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통합할 수 있는 유연하고 포괄적인 이론적 틀을 제공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자기제시 이론에 주목하는 이유는, 사회불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혹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타인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가' 하는 '주관적 기대수준'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동기적 요인들은 자의식 과정을 편향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의식 과정이 자기불일치나 자기제시 동기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외적 내적 대상의 객관적인 속성은 의식을 매개로 하여 주관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즉, 의식은 객관적인 대상 그 자체를 주관적인 경험으로 만들어주는 필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필터의 역할은 필연적으로 '선택'과 '재구조화'를 전제로 한다. 객관적인 대상이 주관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입력되는 정보 중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재구조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불안이 생기는 것은 이러한 선택과 집중의 과정이 지나친 자의식 경향, 즉 자신의 어떤 측면에 대해서만 집중하도록 편향 혹은 왜곡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실제로, 사회불안에 관한 인지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많은 경험적 연구들에 의하면,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특히 사회적 위협자극에 대해 과도하게 선별적으로 반응하는 왜곡된 주의 및 왜곡된 해석과정을 보이며, 또한 사회불안을 증폭시킬 만한 자신 및 타인에 관한 비합리적인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한다(김지혜, 안창일, 1991; 양재원, 2002, 조용래, 원호택, 1999; Constans, Penn, Ihen, & Hope, 1999; Hope, Heimberg, & Klein, 1990; Hope, Sigler, Penn, & Meier, 1998; Lundh & Öst, 1997; Stopa & Clark, 1993). 그런데 이러한 인지적 편향이나 비효율성이 그 자체로 사회불안을 유발한다기 보다는 자의식에

의해 매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다(김지혜, 안창일, 1991). 이는 불안상태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비효율성이 불안 자체보다는 자의식에 의해 매개되는 것이라는 Mattews와 Wells(1988)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 결과이다.

이러한 고찰들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에 있어서 자기불일치(self-discrepancy), 자의식(self-consciousness), 그리고 인정욕구 또는 자기제시 동기(self-presentational motivation)가 사회불안의 기저에 놓인 세 가지 핵심 요인이라고 가정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회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한 가지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즉, Higgins의 모형처럼 자기불일치가 독립적으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자의식을 매개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간의 '의식'이 모든 심리적 경험을 매개한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앞서 자의식과 사회불안 사이의 관련을 검증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지지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의식수준은 동시에 자기제시 동기 수준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즉,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자 하는 욕구가 높을수록 그와 관련된 자기이미지에 관해 생각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설을 하나의 모형으로 설정하여 검증해 보고자 한다. 즉, 자기불일치 상태는 자의식을 통해 사회불안을 유발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의식은 자기제시 동기와 상호작용을 할 것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모형이다. 이 모형은 자의식을 매개요인으로 도입하여 Higgins가 제시한 자기불일치 이론과 Leary의 자기제시이론을 결합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 모형의 측정변인과 이론변인간의 관계는 그림 1로 제시하였다.

방 법

피험자

서울시내 5개 대학에서 대학생 890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중 우선 8가지 척도 중 한 가지 이상의 척도에 응답이 누락된 1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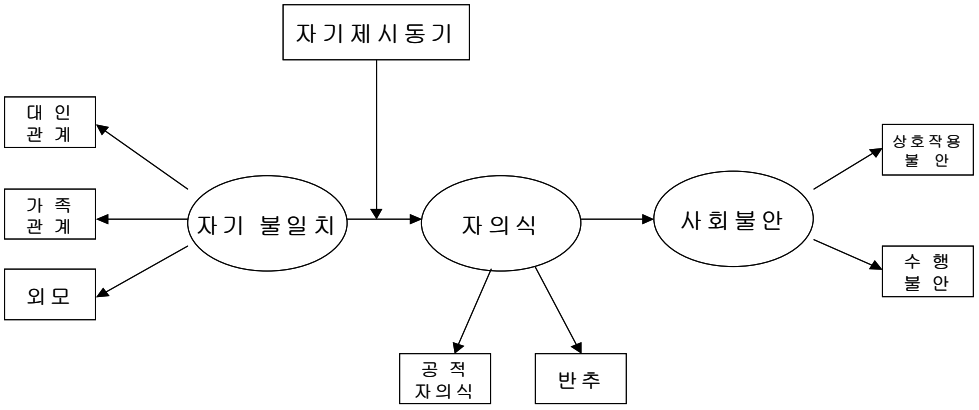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의 측정변인과 이론변인간의 관계

그리고 일방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체크했거나 역방향 문항과 정방향 문항에 대해 비 일관적으로 응답하는 등의 불성실한 응답성향을 보인 24명을 제외한 853명의 자료가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측정도구

다차원적 자기불일치 척도(MDSDS; Multi-Dimensional Self Discrepancy Scale)

최근에 Higgins의 가정을 지지하지 않는 연구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듯이, 본 연구에서는 Higgins가 제안한 6가지 불일치 상태를 가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실적/이상적' 자기 사이의 불일치만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 이전에 이미 타당화 과정을 거친 다차원적 자기불일치 척도(정승아, 2004)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요인(대인관계 및 성격, 가족 및 부모관계, 외모, 사회적 지위,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의 α)는 .93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자의식 척도(Self Consciousness Scale: SCS) 중 공적자의식 하위 척도

23문항으로 구성된 Fenigstein의 원 척도를 Scheier와 Carver(1985)가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적합하도록 개정한 22문항의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특히 사회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는 공적자의식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적자의식 하위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85로 나타나고 있다.

부적응적 자기초점화 척도(Maladaptive Self-Focused Attention Scale: MSFAS)중 '반추' 하위 척도

이 척도는 사회불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적응적 자기초점화 경향을 측정하며, 본 연구자가 개발한 척도이다(정승아, 오경자 2004).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척도로 평정한다. 반추, 타인의식, 자기몰입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별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의 α)값을 보면, 반추 요인이 .89, 타인의식 요인이 .87, 자기 몰입 요인은 .74, 그리고 전체 문항의 α값은 .92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타인의식' 요인은 자기의식 척도 중 공적자의식 요인과 중복되며, 자기몰입 요인은 그 문항 내용을 보더라도, 그리고 이전 연구에서도 다른 요인들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었던 점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반추 소척도만을 사용하였다(정승아, 오경자, 2004).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91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척도(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IAS)

Matticks와 Clarke(1998)가 개발한 척도이며, 대인관계에서 대인간 상호작용 과정에서 겪는 불안(interaction anxiety)의 정도를 측정하는 19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향숙(2000)의 연구에서 번안되고 타당화 과정을 거친 척도를 사용하였다.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의 α)는 .92로 보고 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공포증 척도(Social Phobia Scale: SPS)

Matticks와 Clarke(1998)가 개발한 척도이며, 대인관계에서 타인이 자신을 주시하는 상황에서 겪는 주시불안(scurutinizing axiety), 혹은 타

인의 시선이 의식되는 상황에서 무엇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수행불안(performance anxiety)에 대한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며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향숙(2000)의 연구에서 번안되고 타당화 과정을 거친 척도를 사용하였다.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의 α)는 .92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기제시 동기 척도 (self-presentation motivation scale: SPMS)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호감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를 측정하는 기존의 척도로는 Crowne와 Marlowe(1960)가 개발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social desirability scale)'가 있다. 그러나 자기제시 이론에 근거하여 개발된 척도로는 김남재(1999)가 개발한 자기제시 동기척도(SPMS)가 개념적으로 더 적당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 척도는 Leary와 Kowalski(1995)의 자기제시 이론에 근거하여 제작한 27문항의 척도이며, 대인관계 상황에서 타인에게 좋은 평가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의 정도를 측정한다. 5점 척도(1-5)로 평정하며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의 α)는 .93,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4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및 모형검증은 구조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al modeling)을 사용하였고, 이를 위한 통계프로그램은 AMOS 4.0을 사용하였다. 기타 통계검증은 SPSS 11.0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 사용된 각 척도들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 부하량이 낮은 문항들을 제거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된 문항만을 모형검증에 사용하였다. 모형검증에 사용된 척도와, 하위 요인 및 그 요인에 속하는 문항의 개수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사용된 척도목록

척도	하위요인	내 용
자기 불일치	대인관계	대인관계, 사교성, 친구 수, 화술, 재치와 유머 (5항목)
	외모	전반적 외모, 얼굴, 체형 (3항목)
	부모 및 가족관계	부모와의 관계, 가족간의 화목함, 가족간의 유대감 (3항목)
자의식	공적 자의식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신에 관한 의식을 측정(4문항)
	반추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을 반복하여 떠올리는 성향을 측정 (8문항)
사회 불안	상호작용불안	타인과의 교류적 상호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측정(15문항)
	수행 불안	타인이 자신을 주시하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측정(15문항)
자기제시 동기 척도		성향적 자기제시 동기를 측정 (27문항)

결 과

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차이검증

먼저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남자는 493명(57.8%), 여자는 360명(42.3%)으로 남자가 더 많았다. 평균 연령은 전체집단이 20.1세(SD=2.58)였고, 여자(19.87세)보다는 남자(20.30세)의 연령이 더 높았다(t=2.361, p=.018).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 척도의 평균 점수를 연령과 성별로 나누어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모든 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집단의 측정구조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각각의 이론 변인을 구성하는 이론변인과 측정변수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적절한지 검증해 보았다.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측정구조 검증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df$=11, N=853)=53.399, p=.000; GFI=.983; TLI=.944; CFI=.968; NFI=.959; RMSEA=.064].

자의식의 매개효과에 대한 모형검증

자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기 위해 몇 가지 대안 모형들을 설정하고 그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먼저, 완전매개 모형을 검증한 결과, 전반적인 적합도 면에서 보면 대체로 모형이 자료와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 적합도 지수는 충분히 양호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chi^2(df$=13, N=853) = 108.241, p=.000; GFI=.962; TLI=.881; CFI=.926; NFI=.918; RMSEA=.077]. 한편, 완전매개 모형은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지나치게 경직된 모형일 수 있으므로 자기불일치에서 사회불안으로 이르는 경로를 추가한 '자의식의 부분매개 모형'을 설정해 보았다. 또한 자기불일치와 자의식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회불안에 가산적인 영향을 주는 '단순효과 모형', 그리고 자의식의 매개효과와 직접효과를 모두 배제한 '자기불일치 단독효과 모형'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우선 자의식의 매개효과나 직접효과를 가정하지 않는 '자기불일치 단독효과 모형'의 적합도는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나타났다[$\chi^2(df$=13, N=853)=175.220, p=.000; GFI=.946; TLI=.797; CFI=.874; NFI=.866; RMSEA=.121]. 한편 단순효과 모형의 적합도 역시 수

표 2. 자의식의 매개 효과에 대한 대안 모형들의 비교

	$\chi^2(df)$	p	$\Delta\chi^2(df)$	Δp	*GFI*	*NFI*	*TLI*	*CFI*	*RMSEA*
부분매개	53.399(12)	.000			.983	.959	.944	.983	.064
완전매개	108.241(13)	.000	54.842(1)	.000	.962	.918	.881	.926	.093
단순효과	76.515(13)	.000	23.116(1)	.000	.977	.942	.921	.951	.076
무효과	175.220(13)	.000	121.82(1)	.000	.946	.866	.797	.874	.121

주. 부분매개: 자의식의 부분매개 모형, 완전매개 : 자의식의 완전매개 모형 ,단순효과 :자의식과 자기불일치의 단순효과 모형, 무효과; 자의식의 효과를 제거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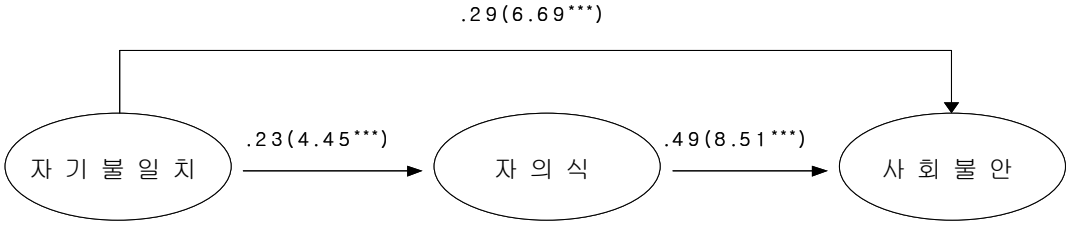

그림 2. 자의식의 부분매개모형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 ( ) 안은 t검증치, *** p<.001

용은 할 만한 수준이었고 모든 경로가 유의하였으나, 부분매개 효과 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우수하며 안정적이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적합도를 보인 부분매개 효과 모형을 기저모형으로 설정하여 대안 모형들과의 카이자승 차이를 순차적으로 검증해 본 결과, 자의식의 부분매개 효과 모형은 다른 대안 모형들과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이 모형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대안 모형들의 비교 및 부분매개 모형은 표 2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자기제시 동기의 중재효과에 대한 모형검증

앞서 채택한 자기의식의 부분매개 모형을 사용하여 자기제시 동기의 중재효과(moderating effect)를 탐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자기제시 동기의 수준을 백분위 점수를 기준으로 3등분하여 중간 집단을 제외하고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의 측정구조가 동일한지 검증해 보았다. 각 변수간의 경로에 동일화 제약을 주고 제약 이전의 기저 모델과의 카이자승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두 집단의 측정구조가 동일하다는 가정은 기각되었다 [$\Delta\chi^2(df=7,\ N=552) = 23.629,\ p=.001$]. 이에 따라 세부적으로 자기제시동기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각각에 대한 측정 모형의 적합도를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의 적합도[$\chi^2(df=12,\ N=278) = 18.954,\ p=.09$; GFI=.981; TLI=.968; CFI=.982; NFI=.918; RMSEA=.046]와 낮은 집단의 적합도[$\chi^2(df=12,\ N=274)=25.628,\ p=.012$; GFI=.974; TLI=.968; CFI=.916; NFI=.916; RMSEA=.064]는 모두 동일한 측정 모형을 사용하여도 될 만큼 비교적 양호하였다. 다만, 상대적으로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의 적합도가 더 높았다. 다음으로 앞서 채택한 자의식의 부분매개 모형, 그리고 완전매개 및 단순효과 모형이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검토해 보았다. 앞서 부분매개 모형을 채택하였으나, 완전매개 및 단순효과 모형역시 기각될 정도의 적합도는 아니었고 또 매개효과의 변화를 검토해 보기 위해 세 가지 모형을 함께 비교해 보았다. 자기제시 동기가 높고 낮은 집단에 따른 이러한 모형간 비교는 표 3과 표 4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표에서 보듯이 앞서 채택한 '자의식의 부분매개 모형'은 '자기제시 동기-고' 집단과 '자기제시 동기-저' 집단의 자료에 모두 잘 부합되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차이가 있었다. 즉, '자기제시 동기-고' 집단의 경우, 자의식에서 사회불안으로 이르는 경로

표 3. '자기제시동기-고 집단'의 모형비교

	$\chi^2(df)$	p	$\Delta\chi^2(df)$	Δp	GFI	NFI	TLI	CFI	RMSEA
부분매개	20.486(13)	.084			.979	.949	.968	.980	.046
완전매개	25.450(14)	.03	4.964(1)	.026	.975	.936	.954	.970	.054
단순효과	36.825(14)	.001	16.339(1)	.000	.965	.907	.909	.939	.077

표 4. '자기제시 동기-저 집단'의 모형비교

	$\chi^2(df)$	p	$\Delta\chi^2(df)$	Δp	GFI	NFI	TLI	CFI	RMSEA
부분매개	25.629(12)	.012			.974	.916	.916	.952	.064
완전매개	33.058(13)	.002	7.429(1)	.006	.966	.950	.863	.886	.075
단순효과	30.649(13)	.004	14.785(1)	.025	.970	.900	.900	.938	.071

는 유의도 수준 .01에서 유의하지 않았고(t=2.29, p=.026), 단순효과 모형에서 자의식이 사회불안에 이르는 직접경로는 유의도 수준 .05에서도 유의하지 않았다(t=1.63, p=.103). 반면에 '자기제시 동기-저' 집단 인 경우, 자기제시-고'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모형의 적합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자기불일치에서 자의식으로 향하는 경로가 .01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다(t=2.222, p>.01). 또한 '완전매개 모형'인 경우, 자기제시-저 집단에서는 부분매개 모형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반면($\Delta\chi^2$=7.429, df=1, p=.006),자기제시-고 집단에서는 그 차이가 훨씬 줄어들었다($\Delta\chi^2$=4.964, df=1, p=.025). 이러한 결과들은 자기제시 동기가 높은 집단인 경우 자의식의 매개모형을 더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제시동기 고-저 별로 구분한 개별집단의 모형검증 결과 나타난 몇 가지 결과를 검토해 보면, 자기제시 동기는 자기불일치와 사회 불안 사이에서 자의식의 매개 역할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요인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앞서 개별집단별로 경로계수의 차이를 검토해 보면, 자의식에서 사회불안에 이르는 경로보다는 자기불일치에서 자의식에 이르는 경로에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를 검증해 보기 위해 자기제시 동기 고-저 집단을 동시에 비교하여 자기제시 동기의 중재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중재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자기제시 동기 고-저 집단별로 각 이론변인간의 경로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주고, 제약을 하기 이전의 기저 모형과의 카이자승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예상대로 세 가지 경로(자기불일치->자의식, 자의식->사회불안, 자기불일치->사회불안) 중에서, 자기불일치에서 자의식에 이르는 경로만이 유의수준 .05에서 차이를 보였다($\Delta\chi^2$=4.627, df=1, p=.031). 이는 자기제시동기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불일치가 자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는 사회불안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

의 이론적 모형으로서 자기불일치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의식의 매개효과와 자기제시 동기의 중재효과를 설정한 모형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모형검증에서 나타난 결과와 그 의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본 결과, 완전매개 모형 보다는 부분매개 모형의 적합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나, 자기불일치와 사회불안과의 관계에서 자의식의 매개 역할을 가정하지 않는 모형은 적합도가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사회불안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자의식이 중요하며, 자의식이 자기불일치와 사회불안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정을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Higgins의 모형처럼 자기불일치 자체가 사회불안을 유발한다거나, 자의식이 사회불안과 상관관계가 높다는 등의 단편적인 연구 결과들을 이어줄 수 있는 보다 통합적이고 구체적인 모형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Higgins가 그러한 모형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모형이 사회불안이라는 특수한 현상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불안에만 고유한 심리적 기제를 밝히기 위해 설정된 것이 아니라, 여타 모든 부정적 정서경험의 기제를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인 모형을 자기불일치를 통해서만 설명해 보고자 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Higgins의 모형처럼 자기불일치의 속성을 세분화하기보다는, 자의식의 속성이나 자의식에 의해 매개되는 다른 심리적 요인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통해서 사회불안이나 우울증과 같은 병리적 현상의 차이점을 탐색해 보는 것이 더 타당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 줄 것으로 보인다. 자의식의 매개효과를 보여주는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불안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자기불일치 모형이 가진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의식의 매개역할 뿐 아니라, 자의식의 매개 역할에 미치는 자기제시 동기의 중재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변인들 간의 단순상관 관계를 보면, 자기제시 동기 자체는 사회불안의 하위 요인들과 그리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r=.22 ~.25), 오히려 자의식의 하위 요인들과 더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r=.36 ~.76). 이러한 결과는 Crowne 와 Marlowe(1960) 의 '사회적 인정욕구'를 측정하는 또 다른 척도를 사용한 김남재(1997)의 연구에서 인정욕구와 사회불안 사이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과도 비슷한 결과이다. 자기제시 이론의 예측을 지지해 주지 않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그는 자기제시 이론의 예측이 틀렸거나 아니면 그 연구에 사용된 척도가 사회적 인정욕구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는 척도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제시이론과 불일치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관련지어 다른 시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자기제시 이론의 가정이 틀렸다기 보다는, 자기제시 동기가 자기불일치 보다는 자의식과 직결되는 요인이며, 자기제시 동기는 자의식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 수 있다. 요컨대, 자의식을 매개로 하여 자기불일치와 자기제시 동기가 결합되었을 때 사회불안이 유발된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는 자기제시 이론의 가정과 모순되지 않는다. 이러한 설명은 실제로 본 연구의 모형검증 결과를 통해 다시 확인되었다. 즉, 자기제시 동기가 높을수록 자의식의 매개역할을 가정하는 모형의 적합도가 증가하였고, 또 자기

불일치와 자의식 사이의 관계가 더 강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요약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자의식'이라는 인지적 요인이 자기제시 동기라는 동기적인 요인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밝힘으로써 자기제시이론과의 연결점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의식을 매개로 하여 자기불일치와 자기제시 동기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불안을 설명하는 이러한 모형은, 자기제시 기대와 자기제시 동기를 통해 사회불안을 설명하는 자기제시 모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 모형을 증명해 주는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자기제시 이론에서 주장하듯, 자기제시 동기나 자기제시 기대(자존감 혹은 자기불일치)만으로는 사회불안을 설명하는데 불충분하며, 자기제시 동기는 내재된 자기불일치구조와 자의식 사이의 관계를 더욱 증폭시켜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더욱 정교화된 모형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또한 치료적인 시사점도 제공해 준다. 치료적 측면에서 볼 때, 어떤 병리적 현상을 유발하는 요인들 중에서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는 요인이 확인되어야 치료적으로 개입해 들어가기가 더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매개변수가 자의식이나 자기초점화 성향과 같은 인지적인 요인이라면 인지 치료적 접근으로 활용되기도 쉬울 것이다. 예를 들어 이미 성향적으로 구조화된 부적응적 자기표상이나 자기불일치구조 자체에 치료적으로 접근하기는 용이하지 않을 수 있는데, 부적응적 자의식과정을 분석하고 교정해 나가는 것은 치료를 위한 용이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즉, 자의식의 과정적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자기초점화(self-focusing)과정이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부정적 단계를 확인하고 이를 교정하는 작업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사회불안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치료효과를 다룬 기존의 연구에서는 자기제시 동기 그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사회불안에 내재된 다양한 비합리적 신념의 한 부분으로서 그것을 교정하는 인지 치료적 과정으로서만 주안점을 두고 있을 뿐이다.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자기제시 동기의 작용기제를 자기불일치와 자의식간의 관계 속에서 보다 폭넓게 조망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 그 신념이 단지 비합리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교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적응적인 자의식 과정을 통해서 자기불일치의 간극이 더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증폭된 자기불일치의 결과가 대인관계 속에서 사회불안과 관련된 어떤 감정, 생각, 행동을 유발하는지에 관하여 보다 유기적인 시각으로 자신의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통합적인 치료의 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첫째, 연구대상이 사회공포증으로 진단된 임상집단이 아닌 대학생 피검자들이었다는 점은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비록, 병리적 불안과 정상적 불안 사이의 연속성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본 연구의 결과를 보다 심각한 증상과 장애를 보이는 임상집단에까지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한다면 본 연구는 병리적인 사회불안 현상을 지칭하는 사회공포(social phobia) 보다는 일반적으로 그보다는 경미한 경우를 지칭하는 '사회불안(social anneity)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라

고 해야 옳을 것이다. 과연 이러한 모형이 임상 집단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검증해 볼 수 있는 후속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종단적인 방법에 의해 요인들간의 관련성을 검토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측정한 설문지 결과를 통해 모형을 검증했다는 점은, 특히 인과적 모형검증의 의미를 제한시키는 결과일 수 있다. 자기제시 동기나 자의식 수준을 통제할 수 있는 실험적 조건 하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검증해 보는 실험연구나 종단적 방법에 의한 모형검증, 사회불안의 하위 유형에 따른 집단간 교차 타당화 연구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기제시동기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에 측정구조 동일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제시 동기의 중재효과가 구체적으로 모형의 어떤 경로에서 유래하는지에 관하여 보다 확신을 가지고 해석하기 어려웠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카이자승 차이에 의한 검증 방법은 '측정구조가 완전히 동일하다' 라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이며 사례수가 많아질수록 가설이 기각될 확률 역시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김계수, 2004; 노형진, 2002; 홍세희, 2000). 더구나 모든 요인계수, 오차변량, 요인간 공변량까지 포함한 가장 엄격한 수준의 '완전 측정동질성 모형(full invariance model)'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며 또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Steemkamp & Baumgartner, 1998). 이에 대한 실용적 대안으로 Byrne, Shavelson, & Muthen(1989)은 '부분측정 동일성 검증법(partial invariance test)'을 제안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의 측정치들이 동질성을 보여야 하는지에 관해 연구자간에 일치된 견해는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측정구조의 동질성을 더 완벽하게 확보하기 위해 동질성을 약화시키는 요인계수를 통제하거나 제거한다면 이번에는 집단 간 모형비교의 의의가 반감되는 난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계수 (2004). AMOS구조방정식 모형분석(개정판). 서울: 데이터솔루션.

김남재 (1997). 대인불안 집단의 자기의식과 인정추구 요구. 학생생활 연구, 13(1), 29-39.

김남재 (1999). 대인불안에 대한 자기 제시 동기와 자기 제시 기대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청구 논문.

김지혜, 안창일(1991). 자기 초점화 주의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0. 243-261.

김향숙 (2000). 사회공포증 하위 유형의 기억 편향.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청구 논문.

노형진 (2002). SPSS/AMOS 에 의한 사회조사 분석. 서울: 형설출판사.

양재원 (2002). 사회불안 집단의 부정적 얼굴 표정에 대한 선택적 주의편파.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은영 (1991). 자기불일치 인지기제에 따른 우울과 불안의 공존현상. 고려대학교 박사 학위 청구논문.

임일모, 조용래, 김학렬 (1995). 자기-불일치와 심리적 불편감의 관계: 자기 불일치 이론의 경험적 검증. 신경정신의학, 34(5), 1416-1431.

조용래, 원호택 (1999). 사회공포증에 대한 인지적 평가3: 역기능적 신념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41-162.

정승아 (2004). 다차원적 자기불일치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정신건강연구, 23, 85-91.

정승아, 오경자 (2004). '부적응적 자기초점화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2), 471-482.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선정 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Bruch, M. A., Hamer, R. J. & Heimberg, R. G. (1995). Shyness and, public self consciousness: Additive or interactive relation with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4, 561-571.

Bruch, M. A., Rivet, K. M., & Laurenti, H. J. (1999). Type of self-discrepancy and relationships to components of the tripartite model of emotional distr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9, 37-44.

Buss, A. (1980). *Self-consciousness and social anxiety* (pp.19-22). San Francisco: W. H. Freeman.

Byrne, B. M., Shavelson, R. J., & Muthen, B. (1989). Testing for the equivalence of factor covariance and mean structures: the issue of partial measurement invariance. Psychological Bulletin, 105(3), 456-466.

Clark, D. M., & Wells, A. (1995) A cognitive model of social phobia. In R.G. Heimberg, M.R. Liebowitz, D.A. Hope, & F.R. Schneier (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pp.69-84). New York: Guilford Press.

Constans, J .I., Penn, D. L., Ihen, G. H., & Hope, D. A. (1999). Interpretive biases for ambiguous stimuli in social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7, 643-651.

Crowne, D. P., & Marlowe, D. (1960). A new scale of social desirability independent of psychopatholog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4, 349-354.

Crozier, W. R., & Russell, D. (1992). Blushing, embarrassability and self-consciousness.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1, 343-349.

Edelmann, R. J. (1985). Individual differences in embarrassment: Self-consciousness, self-monitoring and embarrassibi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6, 223-230.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 319-340.

Higgins, E. T., Klein, R., & Strauman, T. (1985). Self-concept discrepancy theory: A psychological model for distinguishing among different aspects of depression and anxiety. *Social Cognition*, 3, 51-76.

Hope, D. A. & Heimberg, R. G. (1988).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nd social phobia.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 626-639.

Hope, D. A., Heimberg, R. G., & Klein, J. F. (1990). Social anxiety and recall of interpersonal information.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An International Quarterly*, 4, 185-302.

Leary, M. R.,& Kowalsky, R. M. (1995). The self-presentation model of social phobia, In

R .G. Heimberg, M. R. Liebowitz, D. A. Hope, & F. R. Schneier (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New York: Guilford Press.

Lundh, L. G & Öst L.G. (1997). Explicit and implicit memory bias in social phobia: the role of subdiagnostic type.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5, 305-317.

Mattews, G., & Wells, A. (1988).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self-consciousness and cognitive failure. *Cognition and Emotion*, 2, 123-132.

Mattick, R. P., & Clarke, J. C. (199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 of social Phobia and Scrutiny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 36,* 455- 470.

Nilly, M. & Jennifer, W. (2002). Self-focused attention and negative affect: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8, 638-662.

Scheier, M. F. & Carver, C. S.(1985). The self-consciousness scale: a revised version for use with the general populat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 15, 687-699.

Scott, L., & O'Hara., M. W.(1993). Self-discrepancies in clinical anxious and depressiv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282-287.*

Steenkamp, J. E. M., & Baumgartner, H.(1998). Assessing measurement invariance in cross-national consumer research.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 25, 78-90.

Stopa, L., & Clark, D. M.(1993). Cognitive processes in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1, 255-267.

Strauman, T. J.(1989). Self-discrepancies in clinical depression and social phobia: cognitive structures that underlie emotional disord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8, 14-22.

Tangney, J. P. Niedenthal, P. M., Covert, M. V., & Barlow, D. H. (1998). Are shame and guilt related to distinct self-discrepancies? A test of Higgins's(1987) hypothe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256-268.

Tanna, M. B., Mellings, Alden, L. E. (2000). Cognitive processes in social anxiety: the effect of self focus, rumination and anticipatory processing.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 38, 243-257.

Weilage, M., & Hope, D. A. (1999). Self discrepancy in social phobia and dysthymia.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 23, 637-650.

Wells, A., & Papagerogiou, C. (2001) Brief cognitive therapy for social phobia: a case seri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 39, 713-720.

Woody, S. R., Chambless, D. L., & Glass, C. R. (1997). Self focused attention in the treatment of social phobia.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Vol.35, No.2. 117-129.

원고접수일 : 2005. 6. 14
게재결정일 : 2005. 11. 7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5, Vol. 24, No. 4, 887-901

The effect of self-discrepancy on social anxiet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nsciousnes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presentation-motivation

Seung-ah Jung Kyung-ja Oh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s of self-discrepancy on social anxiety. A model proposed, included the mediator of the self-consciousness and the moderator of the self-presentation-motivation between self-discrepancy and social anxiety. Data from 853 undergraduate students were collected. For assessing self-discrepancy, multi-dimensional self discrepancy scale(MDSDS) was developed. Other scales were: self-consciousness, public self-consciousness sub-scale of Fenigstein's SCS scale, rumination sub -scale of maladaptive self-focued attention scale(MSFAS),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SIAS), social phobia scale(SPS), and self-presentation-motivation scale(SPMS). Data were analyz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al modeling. The model hypothesizing partial mediation effect of self-consciousness showed superior fit indices to other alternative models. And the path coefficient from self-discrepancy to self-consciousness indicat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high and low SPMS' which shows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 presentation motivation.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about theses results were discussed.

Keywords : social anxiety, self-discrepancy, self-consciousness, self presentation motivation